

# “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

## ■ 이종윤 원로목사

마태복음 11:29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되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야’ 교회가 하나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빌2:5) 그 겸손은 세상의 어떤 겸손과 달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겸손이요, 그가 보여 주셨고 실천해 주셨던 겸손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고 모방하려는 제자들만이 이 겸손을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게 되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함이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 로마가톨릭교회의 교황이 베드로 사도의 후예라고 자칭하면서 성도의 발을 닦아주어야 할 자리에 앉아 오만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명령과 대접이나 받고 있다면 그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다.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가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동일하신 존재라는 뜻이다. 제2위 신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다. ‘본체시냐’는 영어로 과거 시상으로 번역되었으나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분사형 즉 계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는 성육신하신 뒤에도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소위 사신(死神)신학이 나와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예수가 하나님 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신은 죽었다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것이 신화라면서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을 위해 목숨을 버렸노라’ 하실 때 그 목숨은 헬라어로 ‘조에’(생명)가 아닌 ‘프쉬케’(자아)로 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 주권이 그에게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애를 써서 취하려고 할 만큼 소중한 것을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워’는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심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예수께서 모든 권능과 영광을 쏟아버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 계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겸손의 표현인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주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경우 삼위일체 교리에 위배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갖고 계셨다.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사도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사색적이고 철학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그의 겸손을 흠모하고 찬양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를 영원히 가지고 계시면서 종 된 사람의 형체를 덧입고 계신 것이다. 神 · 人 양성의 기독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독특한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다. 케노시스(비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포기했다는 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케 된다. 도케티시즘(가현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없고 영적으로 오셨다는 가현설은 기독교 이단이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함, 영광, 존귀함, 권능을 다 보여 주셨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권능을 감추시고 자기 능력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자기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이 ‘자기를 비어’ 라는 겸손의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다. 종의 형체(헬.몰페) 즉 그리스도의 지상 존재 형태가 복종과 천대와 열시로 특징 되어진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고 구원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이 우리 사랑과 겸손의 절대 모델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 지혜와 상상력을 초월한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과 겸손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인간의 모양은 본체와 형체와는 달리 다소 가변적이고 일시적이며 본래적이 아닌 형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랑이었고 그 자체가 겸손의 표상이 되신 것이다. 겸손과 복종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음이다. 인간의 모든 겸손은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교만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복종은 십자가의 복종에 비하면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복종과 겸손의 극치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모시지 못함으로, 교회 연합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이다.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쁨과 소망의 부활절입니다.  
1,2,3부 예배는 성찬예배, 찬양예배는 할렐루야찬양대의 감사찬양과 함께 드려집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부활절헌금과 금식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새벽 5시에는 부활절 새벽예배가 있었습니다.  
어둠을 깨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맞는 새벽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길었던 코로나 거리두기로 부터 일상으로 회복되는 이 때에 우리의 예배와 신앙영성도 부활의 복음과 함께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에 기쁨으로 함께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417\\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417_sermon.jpg)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리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용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반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 “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

■ 요 20:19-23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둘째, 부활의 의미와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주님의 빈 무덤은 기본적인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많은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성경대로 사할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고전 15:3-6) 본문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보여준 그들의 실망스럽고 비겁한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지 이들의 두려움에 잠긴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요 14:1),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요 14:18)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도 불안한 가슴에 품고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질병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현실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나의 평안’이란 어떤 평안입니까? 극한의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도 태연하게 누리셨던 주님의 그 절대적 평강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큰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창2:7의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라는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불안과 공포에 잠겨 죽은 자들처럼 처져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숨결인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겔37에서는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함께 하면 다시 장대한 나라로 일어설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혀 새로운 피조물처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3.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겐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것이나 회개치 않으면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마 28:19-20)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일상이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실로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장엄하게 살아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 되고 많은 사람이 죄사함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구박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며..’(히 11:35)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평강과 성령을 주시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생명의 능력과 영혼의 평화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동수 목사	임상현 장로
II 오전 11시	전재홍 목사	오광환 장로
III 오후 2시	안용곤 목사	안용곤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벤전 1:3-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3(부활절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161(159)...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 20:19-2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헌,부활절감사헌금,금식헌금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손달익 목사  
 성찬식 Holy Communion ..... 집 레 자  
 \* 찬 송 Hymn .....143(141)...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 양 예 배

-부활절 감사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안용곤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 다 함 께  
 성 시 ..... 요 11:25-26 ..... 인 도 자  
 찬 송 ..... 159(149) ..... 다 함 께  
 기 도 ..... 차영도 집사  
 성 경 ..... 눅 24:30-35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다시 예루살렘으로” ... 설 교 자  
 부활절감사찬양 ..... 할렐루야찬양대  
 \* 찬 송 ..... 164(154)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전재홍 목사

기 도 ... I부: 박민숙 권사 II부: 박미현2 권사  
 성 경 ..... 요 6:1-13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믿음의 눈으로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화2  
 설 교 ..... 손달익,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오늘 찬양예배는 부활절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며 할렐루야찬양대(대장: 차영도 집사, 지휘: 최낙기 집사)가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수요1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b>특 별</b>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b>찬 양</b>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부 예 배	오전 11시	
	III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모임

1. 한나 전도회 월례회 / 17일(주일) 3부 예배 후 502호
2. 루디아 전도회 월례회 / 22일(금) 오후 8시 ZOOM 비대면

### 알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이번주 심방 일정  
1-10, 1-11, 2-3, 2-5, 3-9다락방
13. 부활절 /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부활절 새벽예배 : 오전 5시  
· 감사예배 및 성찬식 : I · II · III부 예배 시  
· 부활절 감사헌금 및 금식헌금 : I · II · III부 예배 시  
· 부활절 찬양예배 : 오후 4시 30분(찬양 : 할렐루야찬양대)

### 장례

1. 故 박옥순 성도(6교구 최영철 집사의 모친) / 4월15일(금) 별세, 4월18일(월)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중고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1)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2)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3)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453명	546명	1,999명	433명	3,139명



### 부활의 의미

무덤을 깨치고 사흘 만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것도 중요하겠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질문이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세상에 오시기 전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며 하나님 자신이 성경을 통해 이는 내 사랑 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는 자신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준 첫 열매가 되셨으며 진리는 땅에 묻어둘 수가 없다는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죽음 너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심으로 새 소망과 권능을 그리고 새 기쁨과 의미를 부여해 주셨으니 이 부활에 동참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